한반도기 휘날리며… 손에 손잡고 하나 된 코리아

18일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붕 카르노(GBK)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안게임 개막…오토바이 탄 대통령·성화 점화·대규모 공연 화제

남북 선수단 역대 11번째 공동 입장… 관중석·프레스 센터 '환호'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회식을 찾은 이들을 가장 먼저 맞은 것은 경기장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산 모형이었다.

18일 개회식이 열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겔로라 붕 카르노(GBK) 주 경기장은 인도네시아의 웅장한 대자연으로 변신했다.

산자락 하나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길이 120m, 높이 26m, 폭 30m의 특수 무대엔 개회식이 시작되자 폭포수까지 흘러내렸다.

사전공연이 끝나고 뜨거운 환호와 함께 개회식이 문을 연 후 관중석을 가득 메운 인도네시아인들의 함성이 더욱 치솟은 것은 전광판에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의 영상이 등장한 순간이었다.

경호를 받으며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조코위 대통령이 도심에서 오토바이로 갈아타고 꽉 막힌 도로를 질주해 경기장에 도착하는 영상이 화면에 나오자 관중은 웃음과 함성을 터뜨렸다.

이어 귀빈석에 앉은 조코위 대통령이 소개될 때까지 관중은 한목소리로 '조코위! 조코위!'를 연호했다.

이날 GBK 주 경기장에선 56년 만에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의 열정도 고스란히 확인됐다.

개회식에선 대형 무대의 한쪽만을 사용한 탓에 7만6000석의 관중석 가운데 절반을 사석으로 비워뒀는데 나머지 관중석엔 인도네시아 깃발을 들고 마스코트 모자를 쓴 3만5000여 명의 관중이 가득 들어찼다.

조코위 대통령의 개회 선언 이후엔 특수무대에서 대자연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공연이 이어졌다.

공기와 물, 땅, 바람, 불을 차례로 형상화한 대규모 공연이 관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불 공연은 자연스럽게 개회식의 하이라이트 성화 점화로 이어졌다.

성화 주자가 천천히 성화를 들고 산을 타고 올라가 꼭대기에서 마지막 주자인 인도네시아 배드민턴 스타 수지 수산티에게 넘겨주자 수산티가 꼭대기에 있는 화산 분화구 모형에 불을 붙였다.

수산티 등장에 함성이 쏟아졌고, 폭죽과 함께 성화가 점화하자 함성은 더욱 커졌다. 관중은 화려한 조명과 전자음악으로 꾸민 마지막 '아시아의 에너지' 공연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한편 이날 알파벳 순서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선수단이 가장 먼저 입장했고, 남북 선수단은 카자흐스탄 다음으로 15번째로 경기장에 들어섰다.

북측 축구 선수 주경철(21)과 여자농구 단일팀의 최고참인 남측 선수 임영희(38) 두 공동기수를 앞세운 남북은 '코리아'(KOREA)란 이름으로 2000년 시드니올림픽 이래 국제 종합대회 11번째로 개회식에 공동입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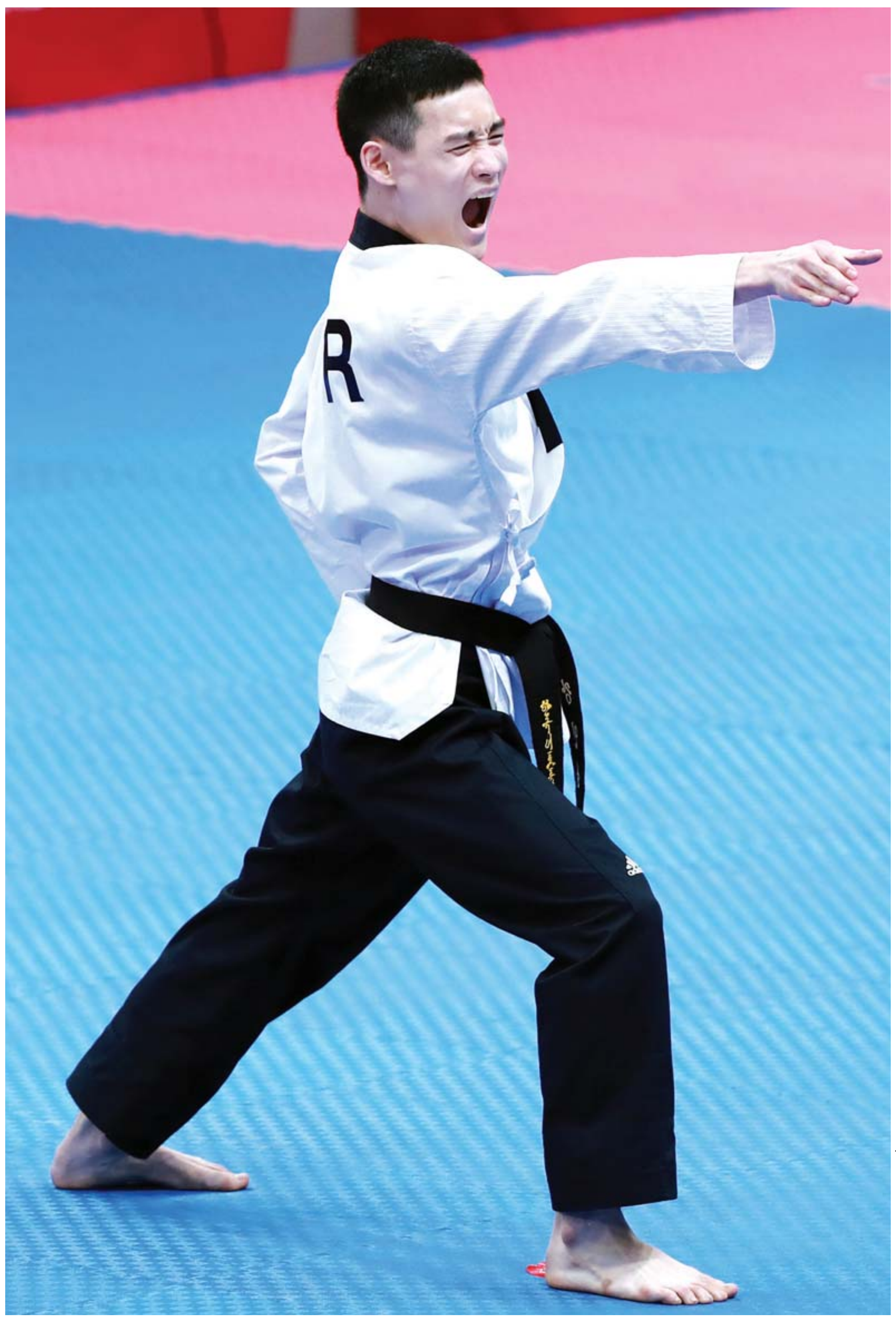
공동기수가 흰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제작된 한반도기를 힘차게 흔든 가운데 흰색 재킷과 청색 바지로 단복을 맞춘 남북 선수단 200명은 손에 손을 맞잡고 전 세계를 향해 반갑게 손짓했다.

본부 중앙석에 앉아 있던 이낙연 국무총리와 북한 리룡남 내각 부총리는 함께 일어나 양손을 번쩍 들고 남북 선수단을 뜨겁게 환영했다. 김성조 한국 선수단장과 원길우 북한 선수단장도 나란히 양손을 잡고 팔을 들어 행진하며 '하나 된 코리아'의 평화 메시지를 전파했다.

'코리아'가 입장하는 순간 경기장 관중석과 메인 프레스센터에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남북은 독도를 표기한 한반도기를 사용하자고 합의하고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를 설득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해 결국 이번에도 평창동계올림픽에서처럼 독도를 뺀 한반도기를 들었다.

/연합뉴스



첫 金 품은 '품새'

태권도 4종목 금2·은1·동1

한국태권도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품새 네 종목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한국은 1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회 태권도 품새 남자 개인전에서 강민성(한국체대)이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겼고 한영훈(가천대)·김선호(용인대)·강완진(경희대)으로 구성된 남자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작성했다.

이어 곽여원(강화군청)·최동아(경희대)·박재은(가천대)이 출전한 여자 단체전에서는 은메달을, 윤지혜(한국체대)가 나선 여자 개인전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개인전의 강민성은 결승에서 이란의 바크티야르 쿠로시를 8.810점-8.730점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강민성은 아시안게임에서는 처음 정식종목으로 치러진 품새에서 초대 챔피언에 오르면서 우리 선수단의 이번 대회 첫 금메달리스트로도 이름을 올렸다.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 팀을 8.480점-8.020점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땄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앞서 남자 개인전에서 우승한 강민성에 이어 품새에서만 이번 대회 두 번째 금메달을 챙겼다.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태국 팀에 0.010점 차로 져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윤지혜는 여자 개인전 준결승에서 개최국 인도네시아의 데피아 로스마니아르에게 패해 동메달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 19일(현지시간)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태권도 품새 경기 남자 개인 결승전에서 강민성이 경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 축구 명예회복 나선다

오늘 키르기스스탄과 예선 3차전…조현우·이승우 등 출전 필승 각오

'자만심과 안일함'은 머릿속에 지웠다. 이제 무너진 자존심을 살리기 위한 김학범호 태극전사들의 심기일전이 시작된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 대표팀은 20일 오후 9시 키르기스스탄을 상대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조별리그 E조 마지막 3차전 경기를 펼친다.

한국은 E조에서 1승1패(승점 3·골득실 +5)를 기록, 2연승으로 조 1위를 확정한 말레이시아(승점 6·골득실 +3)에 이어 2위다. 키르기스스탄(골득실 -2)과 바레인(골득실 -6)이 나란히 승점 1로 각각 3, 4위다.

최종전에서 한국이 키르기스스탄을 꺾고, 말레이시아가 바레인에 패하더라도 승자승 원칙에 따라 한국은 조 1위를 할 수 없다.

키르기스스탄전을 앞둔 태극전사들의 화두는 '자만심과 안일함을 떨쳐내는 것'이다.

17일 말레이시아에 1-2로 패하는 '반둥 쇼크'를 당한 뒤 '캡틴' 손흥민(토트넘)은 "장피한 패배"라고 고개를 숙였고, 황인범(아산)은 "20명 모두 준비를 잘못했다"고 반성했다. 김학범 감독도 "로테이션을 서두른 게 패착이었다. 나의 판단 실수였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사령탑부터 선수들까지 말레이시아전 패배를 반면교사로 삼아 '키르기스스탄전 필승'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전을 앞두고 팬들의 관심사는 손흥민의 선발 출전 여부다. 바레인과의 1차전에 결장한 손흥민은 말레이시아와의 2차전에서 후반 12분 교체 투입되며 예열을 끝냈다.

손흥민은 말레이시아전을 끝내고 "다음 경기부터는 출전하려고 한다.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다"라며 키르기스스탄전 선발 출전의 의욕을 다졌다. 김 감독 역시 키르기스스탄전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최강의 전력을 꾸릴 작정이 다.

손흥민

조현우

한국은 손흥민과 황의조(감바 오사카)의 투톱 스트라이커 출격이 예상된다.

황의조가 1, 2차전을 모두 풀타임으로 뛰었지만 골 감각이 절정이어서 또다시 출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체력 안배 차원에서 바레인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한 나상호(광주)가 교대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말레이시아전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드필더진에서는 바레인과 1차전에 나섰던 선수들이 재투입될 전망이다.

이승우(베로나)와 황인범이 2선 공격을 책임지고 장윤호(전북)이나 이승모(광주)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설 수 있다. 좌우 윙백은 김진야(인천)와 김문환(부산)이 출격을 준비한다.

스리백 수비수는 황현수(서울)-김민재(전북)-조유민(수원FC) 조합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말레이시아전에서 실수가 이어졌던 황현수 대신 194㎝의 장신 수비수 정태욱(제주)을 투입해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살릴 수도 있다.

골키퍼는 말레이시아전에서 아쉽게 2골을 헌납한 송범근(전북) 대신 '월드컵 스타' 조현우(대구)가 출격할 공산이 크다. /연합뉴스